

토론문

제 14 장 포스트식민, 탈식민, 반식민의 지리

작성자: 진송옥

탈식민주의 이론의 “수입된” 틀에서 한국적 이론으로

한국에서 최근 전개된 탈식민·반식민 지리학 담론은 서구의 지식 체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서구의 탈식민 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반식민 이론은 주로 자신들의 식민 경험(백인·원주민·흑인의 관계, 혹은 오리엔탈리즘 담론)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역사적 맥락을 지닌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던 동시에 곧바로 아시아의 새로운 권력 주체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적 이론에만 의존할 경우 한국의 탈식민 담론은 비판하려 했던 바로 그 논리를 재생산하는 지식 종속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리학은 전통 지식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이 공간과 장소를 이해해온 방식에 기초한 토착적 비판 언어를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서구 지식의 독점을 깨고 탈식민 담론을 다세계적 지식 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유교, 불교, 풍수와 같은 토착 지식의 적용은 한국적 특색을 지닌 탈식민 이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유교는 천인합일 사상과 인의(仁義)의 원칙을 통해 자원과 노동을 신식민주의적으로 착취하는 형태를 비판할 수 있다. 불교는 무상(無常)과 연기(緣起)를 강조하며 다층적 관계성을 중시하는 탈식민 담론과 접점을 가지며, 자비(慈悲)의 개념은 인간 억압과 자연 지배 모두를 비판하는 지리학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조선의 풍수와 전통 지리학은 땅을 기맥과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보았으며, 이는 땅을 추상적 대상·경제·정치적 착취 자원으로 간주한 식민주의적 지도 제작과 대비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장소가 공생하는 토착적 탈식민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지식을 결합하면 한국적 탈식민 담론은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틀은 일본 식민지화의 과거를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이주노동, 동남아 투자, 한류를 통한 문화적 패권 등 지역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자기 비판을 촉진한다.

신식민주의와 권력의 식민성의 한국 현대지리학: 인식에서 실천으로

한국 현대지리학에서 신식민주의와 권력의 식민성은 이중적 역설로 인식된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의 피해자였으면서 동시에 경제·문화·사회 영역에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행위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방적 피해자’ 담론을 넘어, 한국이 다른 국가와 국내 이주민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 속에

여전히 지속되는 식민 권력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학문적으로는 세계적 이론과 토착 지식을 결합해 지식의 탈식민화를 추구하고, 지역 간 대화를 확대하여 새로운 패권의 재생산을 방지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대외 경제정책의 개혁, 이주 노동자의 권리 강화, 한류의 소프트 파워 운용 방식 조정, 그리고 신식민주의 비판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식론적 전환과 구체적 실천이 맞물릴 때 비로소 한국은 자기 성찰적 탈식민 담론을 구축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공정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 15 장: 흑인 지리학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토착적 지리 요소들은 배제되거나 희미해졌다. 이전에는 풍수(pungsu), 전통적인 지리지, 민간 측량법과 같은 토착 지식이 조선 사회의 공간 인식과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에 이르러 서구, 특히 일본의 영향 아래 이러한 지식들은 점차 경시되었고, 정밀 측량·경위도 지도·공간의 표준화를 강조하는 근대 지리학의 모델로 대체되었다.

일제 강점기(1910~1945)에는 조선의 지리학이 식민지적 지식 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지도 제작과 지리 교육은 주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한반도는 ‘대동아’의 일부로 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많은 지명이 변경되거나 일본식으로 개명되었고, 풍수와 같은 요소들은 미신으로 치부되어 학문적 삶에서 배제되었다. 특히 민간에서는 일본인들이 신성한 산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지맥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전승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지배 아래서 지리적·정신적 침탈에 대한 집단적 불안과 트라우마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은 나아가 대중문화의 맥락 속에서도 재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흥행 영화 《파묘》(2024)가 그러한 사례로 볼 수 있다.